30주년 앞둔 생명나눔, 2023년은 '도약 원년'

1월 10일, 본부서 신년 간담회
조혈모 세포 실기증 당부 위한
'약속' 캠페인 전개…배지 배포
일면 스님, 선한 영향력 발휘로
"불교 대표 법인 발돋음" 발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내년 출범 30주년을 앞두고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년 출범 30주년을 앞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가 2023년을 시작하며 캐치프라이즈로 '생명나눔 도약의 원년'을 내걸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

생명나눔은 1월 10일 서울 본부 사무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3년 활동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사장 일면 스님은 "부처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1994년 설립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대에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목표로 장기 및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사업,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사업, 불우이웃돕기 사업 등을 전개하며 29년간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데 진력해 왔다"면서 "30주년을 앞두고, 29년이 되는 올해를 불교계를 대표하는 공익법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 △정기 후원자 1만 명 추가모집 △연간 후원금 50억 달성 △환자치료비 연간 5억 원 지원 △불우이웃 돕기 연간 1억 원 지원 △동아리 장학금 연간 5000만 원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년계획에 앞서 공유된 2022년 사업성과에 따르면 생명나눔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속에서도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업 목표의 100% 이상을 달성, 3182명을 모집하는 성과를 얻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동국대 등과 협력, 적극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벌인 결과다. 2021년 대비 캠페인 횟수는 297%, 2020년 대비 457% 상승했다.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의 경우도 70여 차례의 캠페인을 통해 2250명을 모집하며 달성율 100%를 달성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51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이밖에도 환자 치료비 지원의 경우 44명에게 1억2302만 9900원을 전달했으며 기초생활수급 400가구에게 1600만원 상당의 이불과 식품키트를 후원하기도 했다.

올해 생명나눔은 지난해 상승세를 이어받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더욱 긴밀히 협연, 전국 복지관에서 직원을 넘어 내방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대 실시할 뿐 아니라 종립학교와 사찰, 대학 등으로 외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반응이 좋았던 고양국제꽃박람회 등과 같은 지역행사에도 적극 참석, 홍보 및 포교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질병관리청과의 업무 연계를 통해 운전면허시험장 내 홍보 부스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조혈모세포 실제 기증자를 늘리기 위한 '약속' 캠페인도 전개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 따르면, 백혈병은 조혈모세포를 기증받는다면 70% 이상 완치 가능하다. 그러나 희망등록자 중 50%만이 기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생명나눔은 실제 기증자를 늘리기 위해 전국 대학들과 협의, 접수 및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캠페인에 동참한 이들에게 약속 배지를 지급, 기증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실제 기증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일면 스님은 기자간담회 말미, 익명의 후원자들을 소개해 간담회를 훈훈하게 했다. 일면 스님은 "지난해 연말, 신문 인터뷰 보도 후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10여명, 금액으로는 1000만 원이 넘는다"면서 "돼지저금통과 손편지를 두고 황급히 본부 사무실을 나간 이름 모를 후원자들의 뜻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올해도 생명나눔은 열심히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사를 세계 1위 도량으로 만들겠다"

조계사, 제27대 신도회 출범식
1월 10일 이승현 신도회장 취임
"신명나는 도량 만들겠다" 다짐



이승현 조계사 신임 신도회장은 27대 신도회 출범식에서 "조계사를 신명나는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의 신임 신도회장으로 이승현(법명 무애) 인팩코리아 대표가 취임했다.

조계사는 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제27대 신도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이승현 대표를 제27대 신도회장으로, 전임 김의정 신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부촉했다.

이날 취임한 이승현 조계사 제27대 신도회장은 삼성맨 출신 중견 기업가다. 1958년 해남 땅끝마을 건너 아름다운 섬 어룡도에서 태어난 이승현 신임 신도회장은 거북선을 만들고자 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 졸업 후 조선소에 취업해 설계 등을 담당했다.

삼성이 반도체 · 통신 사업을 본격화했을 때 삼성전자로 옮겨 1992년부터 약 10년간 일본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2006년 삼성을 퇴사한 후 스마트폰, 디지털 TV, 자동차 등의 핵심부품인 수동소자류와 GPS안테나를 제조해 삼성전자와 LG에 공급하는 인팩코리아를 경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 조계사 신도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신행활동을 해왔다.

지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신도회 임원으로 위촉된 신도들에게 자긍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신도회 임원)여러분은 모두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조계사의 얼굴로 활약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조계사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제일 먼저 임원으로써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조계사는 한국불교 총본산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신도조직과 내실을 갖춘 신도 교육, 믿음과 실천이 함께 어우러지는 신행의 모범도량을 구현해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현 신임 신도회장은 조계사를 '세계1위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이 신도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각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라며 "앞으로 소임을 보다 보면 막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힘들고 지칠 것이다. 그럴 때 저를 찾아달라. 작은 힘이지만 앞장서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우리 조계사가 더욱 활기찬 도량 아름답고 신명나는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조계사를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1위 도량으로 바꿔놓겠다"고 다짐했다. 신성민 기자

포교원, 경주·부산·원주 순례길 개발

순례길 3곳 안내 팜플렛 발간
지역특성 · 스토리텔링에 주안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경주, 부산, 원주 등 경북, 경남, 강원지역 스토리텔링을 겸한 순례길을 담은 팜플렛 3종을 공개했다.〈사진〉

이번에 발간된 '경주 천년미소의 길', '부산 해수관음길', '원주 치악산 사유의 길'은 경북, 강원 지역의 사찰에 관한 이야기를 곁들인 순례길 안내서다.

먼저 '경주 천년미소의 길'은 경주의 주요 유적지와 산책로를 연결하여 불국토를 꿈꾸었던 신라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경주 순례길은 분황사에서 출발하는 두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코스는 분황사와 알천자전거길을 거쳐 불국사 문화회관에 이르는 길이고, 제2코스는 분황사를 출발하여 황룡사지, 첨성대, 월정교, 인왕동사지 등을 거쳐 다시 분황사에 도착하는 길이다.

'부산 해수관음길'은 넓은 부산 앞바다가 펼쳐진 해파랑길을 걸으며 해동용궁사의 관음신앙을 느낄 수 있는 길로, 해월정사를 출발하여 해동용궁사를 거쳐 해광사에 이르는 해안 산책로를 따라 순례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원주 치악산 사유의 길'은 구룡사와 국형사에 전해오는 전설을 되새겨보고 치악산의 정기를 받으며 신행과 수행에 관한 사유를 할 수 있는 길로, 구룡사에서 치악산 둘레길을 통해 국형사로 이어지는 순례길이다.

포교원 측은 "지속적으로 순례길을 개발하여 우리 사찰의 아름다운 길에 기억에 남을만한 스토리를 담아 국민들과 함께 힐링하고 사유할 수 있는 수행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자대중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혜의 숲길' 순례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신행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2022년에는 '허응당 보우의 길', '창원 용지호수의 길'에 이어 '제주 관음순례길'을 발간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美국무부 장학생들 K-불교 매력에 빠지다

문화사업단, 1월 8~9일 백양사서 템플스테이 개최



미국 국무부에서 선발된 우수 장학생들이 한국불교와 사찰음식 매력에 흠뻑 빠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은 1월 8일~9일 전남 장성 백양사에서 미 국무부 선발 우수 장학생 및 관계자 28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사진〉

이번 템플스테이는 뉴욕주립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실시한 '미국 국무부 선발 우수 장학생 방한 프로그램'으로 하버드대학을 비롯해 프린스턴대학, 콜린대학 등 미국 명문대 학생 24명과 손희정 뉴욕주립대 교수 등 관계자 4명이 참여했다.

백양사 템플스테이에서는 사찰음식 명장인 천진암 정관 스님과 함께 사찰음식에 담긴 내용과 음식을 대하는 마음 자세까지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학생들은 "사찰음식 시연프로그램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다, 교육적이고 유쾌했으며 값진 경험의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불자는 아니지만 사찰에서 스님들의 일상을 보는 것도 흥미로웠으며, 새벽예불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행운이었다"며 "걷기명상은 누구나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기회에 불교와 사찰에 대해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문화사업단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정신적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한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불교와 전통문화로, 사찰음식은 건강한 채식문화로 생명존중을 함양하는 한국의 대표 문화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소중한 체험을 통해 사찰음식과 전통문화를 많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Ⅰ.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 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Ⅲ.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22. 12. 26(월) ~ 2023. 02. 10(금)	· 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인터넷 교부.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 및 합격자 발표	2023. 02. 17 (금)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입학식 및 학사일정 추후 공지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 의무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 의무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 특전: 본종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 시 선덕 법계 품수

Ⅴ.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접수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필수)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필수) 3. 기본증명서 1부(필수) 4. 사진: 반명함판 2매(필수)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5.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6.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7.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이메일(dongbang2030@naver.com), 우편 접수 ※ 문의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T. 02-745-2030, 010-3089-9983

Ⅵ. 교육비

■ 전형료 : 5 만원
■ 입학성금 : 20 만원
■ 등록성금 : 학기당 70 만원 농협 301-0212-6468-11
예금주/한국불교태고종 동방대불원

▣ 입학문의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www.dongbang.org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112)
TEL: 02-745-2030, 010-3089-9983,
FAX: 02-733-0728